

흙, 감정이 되고 조각이 되고 접이 되다

도자공예전공 동문들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공예품과 작가를 발굴하는
제8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공모전에서 대상, 은상, 동상을
나란히 수상한 젊은 예술가들을 만났다.



이인화 | 공예전공 05학번, 양구백자연구소 연구원, 대상

이민수 | 공예전공 00학번, 양구백자연구소 연구원, 동상

배세진 | 공예전공 99학번, 미술대학 공예전공 조교, 은상

● 수상의 소감
인화 예술가로서 아직 젊은 나이이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수상의 영광을 지도해주시고 뒷받침해 주신 서울대학교 분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세진 작품 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하는 일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그런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민수 많은 사람들이 저의 작품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합니다. 앞으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 작품에 대한 소개
인화 '감정의 기억'은 도자기 소재가 가지는 투광성을 이용한 작품입니다. 감정의 기억이 시공간에 따라 선명해지고 희미해지는 것을 도자기에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달라 보이는 문양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세진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모티브를 얻어 동명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기다림을 반복하는 두 주인공과 하나하나 기록을 남기며 만드는 작은 조각으로 작품을 완성시키는 제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 작품명인 'Cylinders'에서 알 수 있듯, 원통 형태를 반복하여 만든 도자기입니다. 공예를 공부하며 배운 기술을 저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시도를 한 작품입니다.

● 서울대학교에서의 배움
인화 사물의 가치와 질을 헤아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예전공 교수님들께서는 제가 사물의 고유한 물성을 이해하고, 사물의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습니다.
세진 비싼 재료부터 작업에 필요한 설비까지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매년 6, 7명 정도 뽑는 소규모 학과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업적을

꾸준히 이루고 있다는 것은 서울대학교의 공예 교육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성장하리라는 가능성이라 생각합니다.
민수 학부 시절, 교수님들께서 수업이 없는 날에도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학생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둘러보시며 피드백을 해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당시엔 교수님들께 수시로 평가받는 것이 부담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예 분야의 대가이신 교수님들로부터 받은 피드백 덕분에 이번 비엔날레 공모전에서 저희가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 꿈꾸는 작업
인화 오랜 시간 도자공예를 공부하면서, 도자기의 투광성에 매혹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진 수련 과정에만 4-5년의 시간이 걸리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그보다 훨씬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가가 보낸 인고의 시간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수 소수를 위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싼 작품을 부호에게 팔아 단 한 명만을 기쁘게 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행복해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인화 평소 도예 외에도 공예 분야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보고, 그것이 저의 생활과 작업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세진 도예 전공자들이 모여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의 탄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 작가가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작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욱 나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수 갑작스레 떠오르는 순간의 영감에 의존하기 보다는 농사를 짓는 사람처럼 매일의 작업 활동 속에 자연스럽게 또 다음 작업을 이어가려 합니다.



도예전공판매전

미술대학 도자공예 전공에서는 매년 12월 첫째 주 금·토·일요일에 '도예전공판매전'을 진행한다. 재학생들이 과제·졸업전시용으로 만든 작품과, 동문의 작품들을 판매하는 자리다. 판매 수익은 다시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HANDS+ 확장공존'을 주제로 9월 16일부터 40일간 청주에서 열렸다. 1999년 공예·디자인 분야를 다루는 최초의 공예비엔날레로 개최 후 세계 60여 국, 3천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40만 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